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인도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 "인도를 포함한 세계 각지의 동포들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주역"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현지시간 9. 8, 금) 저녁 현지 동포를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인도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8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인도는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자 최대 인구 대국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우리나라와 함께 가꾸어 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1990년대 인도의 경제개발 초기에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게 인도에 진출한 결과 삼성, LG, 현대, 기아 등이 인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했으며, 최근에는 금융, 방산, 식품, 의류 분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우리 기업들과 함께 인도 시장을 개척한 동포들의 노력 덕분에 한-인도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인도를 포함한 세계 각지의 동포들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주역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가 되어, 인도에서 기업 활동에 매진하는 동포들에게 현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환 옥타 뉴델리 지회장은 건배사를 통해 "현재 세계 인구 1위 국가가?"이라고 묻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인도"라고 답했고, 이어 임 지회장이 "미래 한국 수출 시장 1위 국가가?"이라고 다시 묻자 참석자들은 다시 "인도"라고 힘차게 화답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인도 현지인 13명으로 구성된 주인도한국문화원 사물놀이팀 '해오름'의 공연이 있었다. 공연 종료 후 대통령 부부는 '해오름' 일동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능력 키워 글로벌 인재 만든다!!

경북도, 제10회 전국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대회 개최

경북도는 지난 9일 경북도청 동리관에 제10회 전국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4년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번 대회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이중언어 능력을 키워 글로벌 시대 국가간 교류역할을 하는 인재로 성장·지원하기 위한 대회다.

이중언어 대회는 초등부, 중·고등부 2개 분야로 나눠 한국어와 부모 나라 언어 2개 국어로 제출한 원고를 발표하는 경연대회다.

대상인 여성가족부장관상을 비롯해 총 13명에게 560만 원의 상금 및 태블릿 PC 각 1대가 부상으로 수여된다. 삼성전자는 1회 대회 때부터 1,800만 원 상당의 부상을 후원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13개 시·도 64명(초등부 41명, 중·고등부 23명)이 8개국 언어(중국어 27, 베트남 19, 일본어 9명 등)로 치열한 예선을 거쳤다.

최종 5개 시도 20명(초등부 12명 중·고등부 8명)이 4개 국어(중국 10명, 베트남 5명, 일본 3, 러시아 2)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올해 영예의 대상인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자는 이서영 학생(경산시 진량중 1



학년)으로 시상금 1백만 원과 부상으로 14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를 받았다.

최우수상인 경상북도지사상은 나형주 학생(경기 안산시 신길중 1학년), 이재경 학생(안동시 안동여중 2학년)으로 시상금 70만 원과 13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를 부상으로 받았다.

한편, 경북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는 1만 7천여 명으로 전국 29만 명의 6%로 전국 5위에 달한다.

이중 미취학 아동 6천4백 명, 초등학생 7천 명, 중학생 2천9백 명, 고등학생은 1천2백 명으로 경북도는 증가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두 개 문화와 언어의 강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생

장할 수 있도록 경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을 활용해 △이중언어 캠프 운영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단계별 언어발달 지원 △취학 후 안정적 학교생활을 위한 학습지원 △정서안정 기반 조성 △맞춤형 진로·취업 상담지원을 하고 있다.

또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자녀를 위해 모국어로 가르치는 학습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자희 경북도 외국인공통체과장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대회를 통해 이중언어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경북도에서는 이들이 이중언어라는 강력한 강점을 발판으로 앞으로 세계화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피터 젝(Peter Zec) 레드닷 회장과 도시경쟁력 높이는 디자인 도시 논의

오 시장, 8(금) 3대 디자인어워드 레드닷 회장과 '디자인 도시 서울' 발전방향 논의

오세훈 시장이 8일,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손꼽히는 레드 닷의 피터 젝(Peter Zec) 회장을 만나 '디자인 도시 서울'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Award)'는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 어워드'와 더불어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손꼽힌다.

1955년에 설립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제품디자인, 브랜드 및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컨설팅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70개국 이상 18,000건 이상의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과 피터 젝(Peter Zec) 레드닷 회장의 만남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당시, '디자인서울 1.0'을 수립하며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2023년 7월에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서울라이트 DDP와 펀(Fun)디자인 시설물 소울 드롭스(Soul Drops) 벤



치가 본상을 수상했으며, 2022년에는 G밸리산업박물관 미디어 라이브러리도 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서울라이트 DDP 소울 드롭스 벤치 G밸리산업박물관 미디어 라이브러리 피터 젝(Peter Zec) 레드닷 회장은 "전 세계 도시들이 제공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도 디자인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 서비스의 질이 달라져야 사람들이 몰려

는 도시가 되는 것"이라며, 서울이 가진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이미 2010년에 세계디자인수도로 공식 선정됐다"며, "전 세계에 서울의 디자인 정체성을 알리고, 브랜드에 '디자인 도시'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전남도,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로 수산자원 회복

올해 16개 수역에 9개 품종 133만 마리 방류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내수면 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회복 등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순천 등 16개 시군 16개 수역에 뽕장어, 소가리 등 토산어종 우량종자 9개 품종 133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순천 등 7개 시군에서 어린 은어 21만 마리를 첫 방류한 이후 9월 현

재까지 뽕장어 6만 6천 마리, 메기 32만 3천 마리, 동남참게 26만 6천 마리, 소가리 3만 3천 마리 등을 16개 수역에 방류했다.

오는 10월까지 동자개 등 4개 품종 43만 마리를 추가로 방류할 계획이다.

방류 후에는 방류수역 포획금지 기간 설정, 어구 제한, 불법어업 단속 등 수산

자원 보호 조치를 해당 시군, 어업인 등과 함께 협력해 취할 방침이다.

그동안 내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남획, 환경오염, 외래어종 유입 등으로 지역 토산어종 자원량이 급감하고, 내수면 어업인구도 줄어 지속적인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와 생태계 회복이 절실했다.

이 때문에 민물고기연구소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60억 원을 들여 지역 토산어종 10종의 어린 물고기 2천900만 마리를 주요 강·하천 등에 방류해 내수면 자원량 증가와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은 전남에서 생산하는 우수 종자를 매입해 이뤄지는 것으로, 어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종자생산업 육성과 어로어업 활성화 등을 위해 수역별 서식환경에 적합한 토산어종 품종을 다양화해 방류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15th **HOT** 페스티벌
 Health. Origin. Taste Festival

영양고추는 언제나 옳다!

2023.09.18.(월) ~ 09.20.(수)
 서울광장(서울시청 앞)

영양군 YEONGYANG-GUN

경북도의회 윤종호 도의원,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30일 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경북도민이 알기 쉽고 배우기 쉬운 경북형 경제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했다.

조례제정의 주요 내용은 경제교육 관련 상위 법령을 적용하여 용어의 정

의를 명확히 하고, 경제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위탁 등에 관해 규정했다.

윤종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시기에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인 경제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해 불공정거래, 불법유사자문, 잘못된 투자습관 등으로 여러 경제적인 문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생애주기 기간에서 건전한 자산관리 습관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빈곤에 처한 노령인구도 크게 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영

국 등 해외 선진국들은 경제교육 전달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을 만큼 경제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종호 의원은 "지방시대를 준비하는 선두주자인 경상북도의 경제발전 기반마련을 위해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시스템 구축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초가을 밤 시민과 함께 음악의 향연 속으로

김기정 의장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의 시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수원특례시의회는 9월 8일 글빛누리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린 '수원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예술무대 - 광포 글빛누리공원 음악회'를 찾아 초가을밤 시민과 함께 멋진 음악의 향연을 즐겼다. 이날 김기정 의장을 비롯한 이재선, 이찬용, 최원용 의원은 글빛누리공원 푸른 잔디밭에서 수원시민들과 초가을 밤 석양의 노을을 보며 수원시립공연단과 합창단, 객원 공연자의 무대를 감상했다.

구, 이웃과의 멋진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수원시민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과 음악회를 찾아 시민들과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나누며 소통할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부산시의회 반선호 시의원, 실종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나서

부산시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실종 신고 매년 3천건 이상 지속 발생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돕고 실종 발생시에는 부산시가 나서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 우리나라 실종아동등 발생신고 접수건수가 2020년 38,496건, 2021년 41,122건(+6.8%), 2022년 49,287건(+19.9%)로 증가하고 있고, 부산시도 실종아동

등 발생신고 접수 건수가 매년 3천건이 넘는 등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05년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의 제정으로 국가차원에서 실종아동 관련 시스템을 법에서 마련하고 있지만, 사건화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특히 지자체의 대응 요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의원은 "아동 등이 실종된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고, 귀가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그 가족도 함께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단 한명이라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또 사건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차원에서 선제적 노력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의원은 "17개 광역시·도 중 8개 광역시·도가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14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근거 조례가 없어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부산의 실정에 맞게 시가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안전·추적장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등의 실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국가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부산시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예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조기발견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위치 추적과 신원 확인을 위한 기기보급 등을 부산시 차

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총괄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국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자치구·군, 경찰청, 교육청,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종사건의 발생을 막고, 조기발견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반의원은 "치매환자, 장애인, 아동 실종 사건은 지자체도 예방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며 "부산시 차원에서 실종아동등의 현황, 실종 사례, 원인 및 유형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게 조례로 규정하여 취약계층 중점 관리, 실종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보급, 조기발견을 위한 추적 장치 등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청과 협업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의원이 발의하게 되는 이번 조례는 이달 12일부터 시작되는 부산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시행된다.

김희태/기자

인천시의회, 18세 미만 2자녀 가구도 하수도 요금 일부 감면

인천시의회 석정규 의원의 인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18세 미만 2자녀 가구도 하수도 사용 요금의 일부를 감면받게 됐다.

8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석정규(민·계약3)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존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의 하수도 사용 요금 감면에서 18세 미만 2자녀 이상 가구의 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인천광역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자녀 가구의 혜택뿐 아니라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다자녀 혜택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하수도 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다자녀 할인카드' 총 4개이다.

인천시 지원 사업 중 현재 '하수도 요금 감면'을 낸 나머지 사업의 경우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하수도 요금의 경우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동일한 다자

녀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혼선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정부가 시행하던 다자녀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만큼 인천시 지원 사업도 정부의 추진 방향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의 대상이 모두 동일하게 2자녀 이상으로 통일될 예정이며, 신청한 가구 기준 18세 미만 2자녀 가구 또한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석정규 의원은 "2자녀 가구 또한 흔히 보기도 힘든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의 복지혜택을 위해 시에서는 더 많은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하수도 요금 감면이 금전적으로 큰 혜택은 아니지만,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복지혜택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대구시의회 "교육청 직원이 행복하면, 대구 교육의 질도 올라갑니다"

교육청 직원 행복으로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 대구 교육 질 향상 기대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8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와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생애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공무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인식 또한 해마다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등으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학생들과 교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 대구시교육청 직원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직원에 대한 상담 및

연수 과정 운영 등 사업 추진, 각종 마음건강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영애 의원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교육청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돼, 대구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윤근수/기자



화성시의회, 제1회 화성시 문화다양성 축제 축하



화성시의회는 10일, 구봉산 근린공원에서 열린 제1회 화성시 문화다양성 축제에 참석했다.

김경희 의장을 비롯하여, 오문섭 부의장, 유재호 운영위원장,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 김미영, 김종복,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이용운, 장철규, 전성균의원이 참석하여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문화다양성 축제를 축하했다.

김경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해지고 있고, 길에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접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라며, "우리와 다르다가 아닌 '우리'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금년 첫 번째로 개최되는 화성시 문화다양성 축제는 화성시에서 주관하고, 다문화가족센터(어린이합창단), 미8군밴드 k-pop공연을 시작으로, 화성시청년예술단 국악단 연주, 국가별 문화공연, 체험부스(터키아이스크림, 케밥, 파니푸리, 코코넛, 이종언어 도서 및 외국도서독서공간) 등의 구성으로, 시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됐다.

양시현/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대선 (112)	문 화 부:대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대선 (113)	부 동 산 부:대선 (117)
	경 제 부:대선 (114)	오 꾀 나 연 부:대선 (118)
	스 포 츠 부:대선 (115)	지 방 부:대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원시, 경기도 주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40년 만성 악취에 시달리던 주민들, 민관기업 화합으로 오랜 갈등을 넘다'로 우수상

수원시가 8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40년 만성 악취에 시달리던 주민들, 민관기업 화합으로 오랜 갈등을 넘다'로 우수상을 받았다.

심사위원 심사와 여론조사를 합산해 시·군과 공공기관 각 6개 최우수(1개 사례)·우수(2)·장려(3)상을 선정했는데, 수원시는 시·군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40년 만성 악취에 시달리던 주민들, 민관기업 화합으로 오랜 갈등을 넘다'는 40년 동안 지속된 수원시 정자동 소재 동원F&B 공장의 악취 문제를 민·관·기업이 협력해 시설 개선한 사례다.

2016년 이후 동원F&B 폐수처리장 악취 민원은 1400건에 달한다. (주)동원F&B는 2019년 고정형 자동악취 포집기를 설치·운영했지만, 악취는 사라지지 않았다. 수원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 가치를 '지속가능성'에 두고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자각시켰고, 시민에게는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2020년 12월에는 동원F&B 폐수처리장을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고, 2021년부터 무인악취측정기를 설치·운영했다.

그동안 40회에 걸쳐 악취 오염도(기준 초과 9회)를 검사했고, 개선 권고 3회, 조치명령 1회, 개선명령 2회 등 행정처분을 6차례 내렸다. 고발(악취저감조치 미이행)도 한 차례 하며 강력하게 악취 개선을 촉구했다.

시민에게 악취발생현황을 상시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2021~2022년 악취시설지정예에 따른 지역주민공청회를 5회 열었다.

2021년 5월 동원F&B 폐수처리장 악취 개선 공사를 시작, 올해 3월 말 공사를 완료했다. 기존 폐수처리장의 노후화된 외부 폐수처리시설을 지중화(地中化)·밀폐화해 악취를 차단했다.

또 산과 알칼리를 이용한 화학반응과 물리적인 흡수법을 이용해 악취를 제거하는 기본 방식에 오존수가 강력한 산화력으로 잔류 악취물질의 분자구조를 파괴하는 공법을 도입해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오는 것을 막는다. 악취 개선 공사비 67억 원은 (주)동원F&B가 전액 부담했다.

그 결과 시민과 기업 간 공감대 형성을 이끌었고 ▲시민참여문화 확산 ▲행정서비스 실질적 체감도 제고 ▲주거환경 개선 등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가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며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적극행정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이민근 안산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 간부회의... "먹거리 안전망 구축"

이민근 안산시장은 농·수산물의 수거검사 강화를 통한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산시는 이 시장이 지난 8일 상록구 이동에 소재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현장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현장회의는 이민근 시장과 간부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농·수산물의 최대 판매처인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추석 대비 물가안정 대책과 농·수산물의 안전한 유통·관리 방안 등에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민근 안산시장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로 인해 다소 위축된 수산물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전하고 촘촘한 수산물 관리를 통해 시민들과 상인들이 함께 상생하는 공간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기차게 운영되도록 정책적 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상인에겐 힘이 되고, 시민에겐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간부 공무원들에게 거듭 강조했다.

안산시는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유통·생산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홍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확대 운영 ▲수산물 유통 거래실적 모니터링 분석 등 꼼꼼한 먹거리 안전망 구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안산시는 민선8기 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간부회의를 지속 개최하고 있다. 가령, ▲대부도 ▲원곡동 다문화거리 ▲백운공원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세심한 행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상응하는 정책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현장중심 행정을 적극 펼치고 있다.

최정부/기자

KB국민은행 정자동지역본부 행복 나눔봉사단 직원 및 가족들 매탄공원 경로당에서 추석맞이 송편나눔 봉사활동 가져~

KB국민은행 정자동지역본부(본부장 홍진선) 행복나눔 봉사단과 천천동지점(지점장 윤행열) 직원 및 가족들은 2023년 9월9일 오후 10번째 봉사활동으로 민들레봉사단(회장 김옥환)과 함께 매탄공원내 위치하고 있는 경로당을 방문하여 추석맞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KB행복나눔 봉사단(회장 이광원)과 국민은행 천천동지점 직원 및 가족들은 매탄공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송편 및 강정을 만들고 서로 얘기도 나누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봉사활동 진행되는 중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의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참여자들을 격려하기도 하였다.

KB국민은행 천천동지점 윤행열 지점장은 어르신들과 함께 뜻깊은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너무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라고 인사를 전했다. 또한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하여 사용해 달라며 봉사단에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봉사활동을 통하여 손수 만든 송편과 강정은 KB국민은행 경기도청 역삼점 점장과 민들레봉사단 김옥환회장이 함께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가 전달하며 봉사활동을 마무리하였다.

김범상/기자



성남시 노인 일자리 '마망베이커리&카페' 1~4호점 호응 속 운영 바리스타 등으로 일하는 어르신 103명...인생 2막 만족도 ↑



성남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마망베이커리&카페'가 참여 어르신들의 호응 속에 운영돼 4호점까지 늘려 운영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이 위탁 운영하는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장이다. 매년 60세 이상을 모집해 각 매장에

서 제과제빵사, 바리스타 등으로 일하도록 연계한다. 필요하면 실버 바리스타 양성 교육(2개월 과정)도 연계한다.

현재 1~4호점에서 일하는 어르신은 103명이다.

호점별로 ▲산성동 무지개 경로당에 있는 1호점(2005년 개점)은 56명 ▲성남동 성남시 아리움 1층에 있는 2호

점(2009년도 개점)은 17명 ▲분당 서현도서관 1층에 있는 3호점(2015년도 개점)은 16명 ▲산성동 꿈꾸는 예술터에 있는 4호점(2021년 개점)은 14명이 일한다.

이 중 4호점은 지난 8월 18일 입점 계약을 2년 연장해 성남시 노인 일자리 사업장을 유지하게 됐다. 각 마망베이커리&카페에서 어르신들은 주 2~3일, 하루 4시간 일하고 3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거리 청소 등과 같은 단순노동을 제공하는 일자리와 달리 자기 경험과 능력을 살려 카페를 직접 운영하도록 해 인생 2막을 연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에 시는 오는 10월 수정구 수정동에 성남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6공 카페(12명 채용 예정)' 개점을 지원해 시장형 카페 사업장을 하나 더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정중앙·중원·황송·분당노인종합복지관 등이 운영하는 카페애노쉬, 카페들치, 카페지움, 꿈꾸는 카페, 삼가연정, 카페뜨루슈아 등 모두 14곳의 시장형 카페 사업장(125명)을 대상으로 노후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성남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들 시장형을 포함해 공익활동형, 취업알선형, 사회서비스형 등 4개 분야, 135개이며, 참여 어르신은 총 6550명이다.

김범상/기자

고양특례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974억 원 부과

고양특례시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0만4000여건 1,974억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9월에는 주택 2기분 재산세(연 세액의 1/2), 토지분 재산세는 세액의 전부가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주택·토지 공시가격 하락으로 전년 부과액 2,134억 대비 7.4%(160억)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 4.5%였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하향

조정되어 '1가구 1주택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4일(수)까지다.

시민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ATM), 무인공과금납기, 위택스,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앱, 네이버 및 카카오 앱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및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안양시,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4년 만에 복지인 한자리에

유공자 43명 표창, 방송인 선의 '지금이 선물이다' 토크콘서트 열려

안양시가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을 기념해 지난 6일 안양시청 강당에서 4년 만에 대면행사로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1999.9.7.)을 계기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도준우)가 주관하고 안양시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복지 확충'을 주제로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복지인한마당으로 열렸다.

기념식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복지진전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유공자 43명에 대한 표창을 시작으로 기념사, 축사,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복지인한마당에서는 방송인 선이 '지금이 선물이다'를 주제로 사회복지종사자들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 가 열렸다. 방송인 선은 이 순간을 선물처럼 사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해 업무 등으로 바쁜 일상



속에 지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최대호 시장은 인사말에서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하고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건강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1인당 35만원의 겸진비 지원사업을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양질의 종합검진 및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안양시 관내 10개 검진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우용/기자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18일 송도서 개막

18~19일 송도컨벤시아, 20개국 재난안전분야 지도자 및 전문가와 재난위험경감 및 협력방안 논의

International Disaster Resilience Leaders Forum Incheon 2023
2023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인천광역시은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2023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International Disaster Resilience Leaders Forum Incheon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은 도시회복력 강화에 필요한 전략을 마련하고 재난위험경감에 대한 혁신적인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장으로, 지난해 처음 시작해 올해 2회째를 맞이한 국제행사다.

이번 포럼은 '기후 및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기술 활용 및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인천시, 유엔재난위험감사사무국(UNDRR), 인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이 후원한다.

인천시는 2021년 11월 유엔재난위험감사사무국로부터 아시아 최초로 MCR2030 복원력 허브 인증을 받아 재난안전분야 선도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에서는 전 세계 20개국의 재난안전분야 지도자 및 정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여 재난위험 경감 및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포럼은 중국 저탄소생태계혁신센터 지에 우(Jie Wu) 부소장 등이 참여하는

전문적·학술적 토론 및 각국 도시의 재난안전분야 지도자들의 실제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폭넓은 공유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태국 방콕, 몽골 울란바토르 등 13개의 해외 도시 시장 및 부시장이 참석한다.

또한, 연계행사로 MCR 2030 참가 도시의 우수사례와 인천시의 우수사례에 대한 전시 및 홍보 부스, 시민안전 세미나, 재난안전 전문교육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포럼은 총 5개 세션으로 ▲1세션은 동북아 및 동남아 지진연구 및 재난위험경감 국제협력 ▲2세션은 동북아 및 동남아 재난위험경감 기술 활용 우수사례 ▲3세션은 MCR 2030 도시의 재난위험경감 기술 활용 우수사례 ▲4세션은 기후 변화 및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기술 활용, ▲5세션은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국제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으로 구성된다.

특히, 2세션은 동북아 및 동남아의 재난위험경감 기술에 도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장으로 일본 센다이시 경제국 혁신진흥부 수석국장장과 태국 방콕광역시 부지사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인천시에서는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이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시스템 운영, 침수 방지 예방 시스템 구축 등 재난관리 우수사례를 발표하게 된다.

또한, 개최 이틀째인 19일에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시 지진 및 토지분석 과장이 연사로 직접 참여해 지난 2월 발생한 튀르키예 대지진의 피해 복구 및 정상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국제사회의 협력 및 파트너십의 사례를 발표하고 범세계적인 재난 발생의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사전등록과 현장등록 참여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포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훈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국내·외 재난안전분야 전문가들과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재난위험경감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중앙시장 '나도 가수다' 경연서 깜짝 무대 선보여

10일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 광장서 '나도 가수다' 왕중왕전 개최...13개 팀 참가 열띤 무대 펼쳐

용인특례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 광장에서 지난 10일 개최된 '나도 가수다' 왕중왕전 경연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깜짝 무대를 선보였다.

이 시장은 사회자의 요청으로 무대에 올라 유심초의 '사랑이여'를 열창했다. 이 시장이 선보인 깜짝 무대에 400여명의 관중들이 큰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다.

용인중앙시장상인회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방문객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주기 위해 김량장 축제의 일환으로 '나도 가수다' 경연을 개최해 왔다.

6회째를 맞이한 이번 경연에는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의 예선을 거쳐 선발된 13팀이 무대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쳤다.

국악과 클래식이 더해진 퓨전 음악을 선보이는 '인 뮤직 앙상블'의 사천군연을 비롯해 TV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을 통해 이름을 알린 가수 진웅 씨의 축하무대도 펼쳐져 관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 시장은 이날 경연 무대가 시작되기 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공로

로 최원설 용인중앙시장 상인회 부회장과 관계자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 시장은 "용인중앙시장 일대가 지

난해 말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앞으로 4년간 국비 186억 원을 지원받고 총 652억 원을 들여 주차 공간, 청년문화·창업 공간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하게 되는 만큼, 더 많은 분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와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오늘 경연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용인중앙시장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경연에 참여한 13개 팀을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이 무대를 함께 즐기고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환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석해 멋진 무대까지 선물해 주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용인중앙시장 상인회는 시장 이용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상/기자

화성도시공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이 맞손

화성도시공사, 개나리벽지,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이 지역사회를 위해 맞손

화성도시공사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개나리벽지, 화성시사회복지재단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근영 HU공사 사장, 김훈 개나리벽지 대표이사, 고원준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화성시사회복지재단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HU공사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에 전문기술 인력과 기타 경비를 지원하게 되며, 개나리벽지에서 고품질의 벽지를 현물 지원하게 된다. 또한 화성시사회복지재단에서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세밀하게 선별하여 효과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했던 김훈 개나리벽지 대표이사는 "주거환경 가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에 참여해 기

다"라며 "건강한 사회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수행으로 사회적 책임 경영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고원준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인프라 확장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자원의 연계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영 HU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관이 협력하면서 각 기관의 고유업무를 활용해 지역사회 소외계층 복지증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하며 협약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양시현/기자

부천시, 청년 잇는 '청년주간행사' 23일 개최

청년들이 직접 기획 과정에 참여해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부천시는 청년의 날을 기념해 오는 9월 23일 중앙공원에서 '2023 부천 청년주간행사'를 개최한다.

"청년과 '청년, 세대, 미래'를 잇는다"를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 과정에 참여해 전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 밴드 '서정', 댄스팀 '홀리롤라', 힙합그룹 '메버릭 플즈'가 함께하는 축하공연 ▲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 캐리커처, 공예·공작 등 체험부스 ▲ 폴리마켓 등이다.

또한, 행사장 구석구석을 체험하는 참가자에게 음료 쿠폰을 제공하는 '갈-이

들자! 스태프투어'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그간 청년정책 추진에 힘써온 청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청년의 날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식도 함께 진행된다.

청년주간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축하공연, 홍보·체험부스, 폴리마켓 등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지며 오후 5시에 막을 내린다.

모영미 아동청소년과장은 "청년 비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청년뿐 아니라 시민이 함께 즐기는 소통과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용민/기자



"차별없는 세상, 성평등한 광명" 광명시, 2023년 제28회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광명시는 지난 7일 광명극장에서 "차별없는 세상, 성평등한 광명"을 슬로건으로 제28회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광명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기념식은 5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사랑합창제 우수가족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 ▲축사 ▲양성평등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으며 양성평등 촉진 유공자 30명을 표창하며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겼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념사에서 "양성평등의 의미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극복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와 일·가정 양립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광명시는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맞벌이 부부의 고민인 아이돌봄 문제 해소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족친화적이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통해 양성평등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주간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 '여권통문'이 발표된 9월 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면서 일주일간을 기념주간으로 정해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시는 양성평등주간인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아이사진을 공모하여 양성평등주간 동안 가족사랑사진전을 열었으며, 2일에는 도서 교환 및 책 읽어주는 '북페스타'와 식물 화분을 나누면서 탄소



중립을 체험하는 '누구나! 저탄소 실천', 5일에는 가족팀과 유아단체팀 10팀이 참여한 가족사랑합창제, 6일에는 성인지 감수성&프로파일러 이야기, 7일에는 방송인 조영규와 함께하는 '인생 토크(Talk), 토크(Talk)' 등을 진행했다.

윤용민/기자



전남도, 친환경농업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친환경농업 관계자 참여, 인증 확대 방안 중점 논의

전라남도는 최근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도, 시군 친환경농업 공무원, 시군 친환경농업협회장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인증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대책 회의는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시군 친환경인증 목표달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우수 시군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최근 농약비산 문제와 친환경농자재 등 투자비용이 높은 과수·채소 품목의 친환경 진입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토의도 진행됐다.

친환경 인증 취소·포기 방지 및 과수·채소 인증품목 다양화 대책을 주제로 친환경농업의 현 실태를 살펴보고, 친환경

농업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시군 친환경농업협회장 참석으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들까지 제시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도 친환경농업이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 취소·포기 최소화 및 품목 다양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친환경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친환경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관리 강화 교육을 실시해 인증취소를 예방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친환경 버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농업 인증 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나주시-aT,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바로마켓 나주점' 10월 오픈

나주농업진흥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바로마켓 개설 운영 이행약정 체결

전라남도 나주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익이 되는 직거래장터인 '바로마켓'을 운영하게 됐다. 나주농업진흥재단은 지난 6일 aT와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개설 운영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행약정에 따라 aT는 올해부터 5년간 바로마켓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홍보·교육비 등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에서는 10월 말부터 빛가람동 호수공원에서 50농가가 참여하는 '바로마켓 나주점' 개설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한다.

로컬푸드직거래 장터 등에 우수 농산물, 가공식품 등을 출하하는 농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판매자를 모집한다. 바로마켓 나주점에 참여할 농가, 농업법인은 나주시청, 나주농업진흥재단 누

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단은 참여 농가에 카드단말기, 냉동고 등 기본 물품을 지원한다.

또 소비자를 위한 경품·농특산물 증정 이벤트,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와 농촌체험과 연계한 특색있는 직거래 장터를 만들 계획이다.

바로마켓 나주점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빛가람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용범 재단 부이사장은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농가에게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판로를 확보해주는 것이 바로마켓 나주점의 목표"라며 "aT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바로마켓 나주점을 전라남도 대표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육성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전북도, '찾아가는 소비자 권익증진 행사'(남원) 실시

도·한국소비자원·남원시·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 공동주관



전북도·한국소비자원·남원시·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가 공동 주관하는 '찾아가는 소비자 권익증진 행사'를 7일 전북 남원시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남원시노인복지관에서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법'과 '건강기능식품의 이해'를 주제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했고, 참석자에게 건강진단 및

장수사진 촬영, 은퇴 후 자산관리 방법, 상조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위한 휴대폰·방송 무상수리, 사용이 어려운 소형 폐가전을 수거하는 자원 순환 환경 보전 활동을 실시했으며,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에어컨, 티브이 등 대형가전의 기능과 안전을 점검하는 '찾아가는 방문 점검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월락초등학교'에서는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 대상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드론 체험과 용돈관리 및 저축 등 합리적인 소비습관 교육을 실시했다.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에서는 국내 자동차 5사의 차량 무상점검이 실시됐고, 한국적육관리원은 휘발유

등 석유 품질 검사와 함께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운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남원시 어르신들의 소비자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지방소비자 권익증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문성철 전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오늘 행사는 한국소비자원과 여러 기업, 기관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소비자의 복리를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어르신들의 건전한 거래행위는 물론 각종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완도군, 학부모와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 머리 맞대

신우철 군수 제안, '교육 활동 보호' 교육 실시

완도군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학교'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에 걸쳐 완도생활문화센터와 노화중학교에서 진행됐으며, 2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26일 전라남도 교육청과 완도군의 업무 협약식에서 신우철 군수가 제안한 사항으로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교육의 강사로 초청된 이나연 변호사는 학교 폭력 및 교권 보호 전문 변호사로 '교육 활동 보호의 목적, 관련 규정 및 제도, 교육 활동 침해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학생, 학부모, 교권 등 교육 공동체 간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군에서 시의적절하게 교육을 마련해 주어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 보호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교원들의 교육 활동 보호 및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된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양영율/기자

전라남도·함평군, 성공적인 가을 축제 개최 위해 협력 약속

전라남도도와 함평군이 성공적인 가을 축제를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8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함평군을 방문해 가을 관광철 대비 지방도 관리상태를 점검했으며 이후 이상의 함평군수와 면담 시간을 가졌다.

면담에서 이 군수는 다가오는 가을 축제에 대비해 관내 지방도 8개소 12.3km 포장 및 안전시설을 정비 등 31억원의 사업을 건의했다.

사업 세부 내용으로는 축제장 주변 출입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도로 재포장 8.2km, 차선 도색 3km, 선형제량 0.5km이다.

이에 전남도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함평군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 밝히며 긴급보

수가 필요한 도로 재포장과 차선 도색에 대해서는 우선 시행해 축제 개최 전에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전남도에서는 손불면 월천지구 도로개설 등 3개 지구 4.5km 지방도 정비를 위해 488억원을 투입, 설계중에 있으며 설계 완료 후 신속하게 착공을 할 예정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군의 도로 실정을 파악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전라남도에 감사하다"며 "관광객들이 이번 축제 기간 동안 함평에서 안전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에서는 오는 9월 5일부터 17일까지 제24회 함평모악산꽃무릇축제가 개최되며,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대한민국 국향대



전이 개최된다.

특히 올해 꽃무릇 축제는 주최가 해보면서 함평군으로 이관돼 더욱 성대하고 다채롭게 열릴 예정이며 다음

달 열리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포함해 축제 기간 동안 5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갈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진/기자

전남도 순천 문성마을,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대통령상

전남도 대표 5개 팀 모두 입상...지속가능 마을만들기 실현 성과

전라남도는 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0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순천 문성마을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전남 대표로 참여한 3개 부문 5개 팀 모두가 입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순천 문성마을은 27가구가 거주하는 대표적 강소마을이다. 마을경관 가꾸기를 시작으로 지역 특화자원(공) 상품화로 전체 가구 소득증진을 구성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발전, 전체 주민 대상 연금제 계획, 상시 문화 복지활동 등 장기 목표에 따른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실현했다.

성봉만 문성마을 이장은 "이번 수상은 문성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의

지로 이뤄낸 쾌거로 다른 농촌마을을 선도할 전남 대표 농촌마을로 자리매김토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콘테스트에서 해남 동해마을은 마을가꾸기 분야 동상을 수상했다. 자립기반 마련 및 소득 다각화를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마을축제, 마을회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 내 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암 모정마을 김창호 위원장은 행복 마을을 만들고,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꾼 노고를 인정받아 우수활동가 은상을 수상했다.

농촌만들기 분야에 참여한 곡성 하

모니힐링스쿨, 함평 귀농귀촌 체류형지원센터는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이번 콘테스트에는 마을만들기 1천 470팀, 농촌만들기 202팀, 우수활동가 44팀, 총 3개 분야 1천716팀이 신청, 각 도 예선을 거쳐 54팀이 참가했으며 농식품부 현장평가를 통해 24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올해 10회째인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주민과 지자체가 콘테스트 참여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마을 간 선의의 경쟁 유도,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및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2023년 제2회 구례군-한예종 교류 공연 '가을하늘' 개최

구례군과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함께하는 뮤직 콘서트'가을하늘' 개최!

구례군은 '2023년 제2회 구례군-한예종 교류 공연 - 뮤직콘서트(music concert) '가을하늘'을 오는 9월 16일 오후 4시 서시천체육공원 야외무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문화소외지역의 취약한 문화기반 극복 및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9월 '구례군-한국예술종합학교와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공연이다.

올해 공연 프로그램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젊은 예술가들로 구성된 관악합주단 '크누아브라스앙상블', 혼성년 창단 '리에토 클랑(Lieto Klang)', 청년

풍물단 '지음'이 출연한다.

추석을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공연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도심에 비해 문화생활의 기회가 적었던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흥과 신명을 함께 끌어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한편, 김순호 구례군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젊은 에너지가 군민들에게 색다른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더불어 초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2023년 제2회 구례군-한예종 교류 공연

뮤직콘서트 가을하늘

2023.9.16.(토) 16:00
서시천체육공원 야외무대

프로그램	공연장	장르
관악합주단 크누아브라스앙상블	혼성창조단 리에토 클랑(Lieto Klang)	청년 풍물단 지음
Trumpet Tunes and Air (New Music)	Saraband (19세기 노르망디의 춤곡) - 18세기 프랑스의 춤곡	충남풍물단 '살랑이는 바람'
Festive Overture (Orchestral)	Funckel-Funkel (19세기 프랑스의 춤곡)	
Camera Solo (Camera Solo)	Hand Bellsonne (19세기 프랑스의 춤곡)	
연주	관악합주단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합주단

주최: 구례군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절차 완료

제10차 세계지질공원 총회서 인증서 수령, 6년여의 인증 여정 마무리

지난 5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전북 서해안의 인증서가 유네스코로부터 공식 전달됨에 따라, 2017년 9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시작으로 6년 동안 추진해왔던 세계지질공원 인증 절차가 공식 완료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부터 11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 일원서 개최된 제10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폐회식에서 전북 서해안을 비롯한 전 세계 18개 신규 공원의 인증서 수여식이 개최됐다.

수여식에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하고창군수, 부안군수 등이 참석했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GN) 의장(니콜라스 조로스/그리스)으로부터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유네스코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27년 5월까지(인증 확정일 기준) 4년 동안의 세계지질공원 운영 자격이 유지되며, 2026년 재인증 신청과 2027년 상반기 현장실사 등을 거쳐, 향후 4년 동안 운영 자격이 재부여된다.

이에 도와 고창·부안군은 4년 주기의 성공적인 재인증 획득은 물론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북 서해안이 우리나라 5번째 세계지질공원이자 국내 최초 '해안형' 세계지질공원이라는 특성을 적극 반영해 국내·외 탐방객 방문 활성화를 위한 신규 탐방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세계지질공원 방문자 센터 조성 등의 대규모 국가예산 사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체류인구 유입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경제적 효과 창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등의 체류형 힐링 탐방 기반 조성 등과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인증 당시 권고사항인 지질공원 선진 운영 사례 도입 등을 위한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 등에도 지속 노력하여, 전북 서해안 생태자원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해외 세계지질공원 정기 교류 등의 협력 체계 구축과 국제 학술행사 유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상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브랜드의 현명한 활용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우리 도 서해안 생태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Jindo 진도군

진도군, '학교폭력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민·관 함께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진도군이 6일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진도군청, 진도경찰서, 진도교육지원청, 진도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해 학교폭력 예방 구호와 함께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안내 전단지과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학교폭력 없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군과 함께 지역내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협업을 통해 폭력 없는 학교, 더 나아가 행복한 진도군

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군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각종 사고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또한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청소년을 위한 개인·집단상담, 심리검사, 학교폭력·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진/기자

목포시, 전국체육대 성공 위해 시민 자율 차량2부제 시행

원활한 교통 흐름 위한 자율 차량2부제 전 시민 동참 당부

목포시가 오는 10월 13일부터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과 행사 관계자들의 원활한 교통수통 지원을 위해 목포시 전역을 대상으로 시민 자율 차량2부제(홀짝제) 시행한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개항 후 시가 주재최지가 되어 열리는 최초의 국가 단위 스포츠 대축제인 전국체육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 분야는 방문객들이 피부로운 느끼는 분야인 만큼 소홀함이 없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는 가운데, 시민 자율 차량2부제 시행은 대회 방문객들에게 성숙한 시민 의식은 물론, 전 시민이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대회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시행될 시민 자율 차량2부제는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각각 운행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상은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이다.

다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교용, 보도용, 임산부, 유아동승, 타 시, 도 차량 등은 제외된다.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유관기관·단체의 협조 요청은 물론, 범시민운동인 희망찬 목포만들기와 연계해 각 동별 실천추진

단을 통한 길거리 캠페인 등 2부제 동참을 위한 다각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양대 체전의 성공적 개최는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전반에 걸쳐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며, "전 시민이 함께 동참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박종배/기자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 자율 차량2부제 [홀·짝제] 시행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차량 2부제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간** 2023. 10. 11.(수) - 10. 19.(목) ▶ 9일간
※ 대회기간: 2023. 10. 13.(금) - 10. 19.(목)
- 적용지역** 목포시 전역
- 대상차량**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 개인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긴급용, 외교, 보도, 임산부, 유아동승, 타 시도차량 등
- 운영방안** 차량 번호만 끝자리 홀·짝수 해당일제 운영제한
○ 차량 번호만 끝자리가 홀이면 10.11.(수), 10.13.(금), 10.15.(일), 10.17.(화), 10.19.(목) 운행제한
○ 차량 번호만 끝자리가 짝이면 10.12.(목), 10.14.(토), 10.16.(일), 10.18.(수) 운행제한

목 포 시

화순군, 벼 친환경농업 단지 긴급 병해충 방제 지원 추진

화순군은 8일 올해 긴 장마 및 기후변화로 혹명나방 등 벼 병해충이 급격하게 증식했다고 밝혔다.

농가들은 "젓은 비로 적절한 방제시기 조절의 어려움과, 긴 장마로 인해 약효 지속 기간이 짧아 병해충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혹명나방은 유충이 잎을 갉아 먹어 쌀 품질 저하는 물론 벼 잎의 광합성을 방해해 전체 생산량의 10~30% 수확량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가 피해가 크다.

벼 생육 후기는 쌀 품질과 수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가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벼 친환경농업 단지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친환경농업 자재로 방제하고 있

어, 기존 관행 농지에 비해 그 피해가 더 심각한 상태이다.

이에 화순군에서는 523ha, 50개 친환경농업 단지에 총 1억 4백 6십 만 원을 확보하여 긴급 방제비로 투입하여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긴급 방제 결정은 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예방 차원의 선제적 방제를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실시하는 것으로 친환경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신속한 방제로 소득 보장과 쌀 안전 생산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친환경 농업인들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윤경호/기자



강진군, 탄소중립 실천 위한 에코리더 양성



강진군이 기후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

학습도시 조성 공모사업인 에코리더 양성 과정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에코리더 양성과정 운영을 통해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마을 단위로 전파할 수 있는 활동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 첫날 교육생들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일상 속에서 느낀 심각성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을 가지며 탄소중립에 대한 깊은 필요성을 공감했다.

교육과정은 ▲제로웨이스트의 이해 ▲SDGs와 기후위기 ▲분리배출 실천 등 이론 교육과 실생활에서도 실천가능한 삼

푸바 만들기, 고체치약 만들기, 설거지 비누 만들기, 비건 김밥, 샌드위치 만들기 등 실습 교육으로 총 12회차로 운영된다.

과정 후반부에는 마을로 직접 찾아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방법을 교육하며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누구나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에코리더 양성과정을 시작으로 생태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생태환경자원을 보존·보호하는 캠페인 활동,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강진만 갯벌생물, 철새에 대한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윤호/기자

경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으로 농업대전환 확산

2024년 기금 용자지원 650억 원 확정, 9.11~10.20일까지 신청

경북도는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대전환의 대대적 확산을 위해 9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내년도 진흥기금 지원 규모는 650억 원으로 시군 사업 416억 원, 도 사업으로 163억 원을 지원하며, 자연재해·가축질병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경영자금으로 71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도 사업으로 청년농 창업지원 70억 원, 농식품 수출·가공 48억 원, 청년농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16억 원 등을 배정해 농어업 첨단화·차세대 선도농 육성을 통한 농업대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주지를 둔 농어업

인, 농어업법인 등이며 개인 2억 원(스마트팜 5억 원), 법인 5억 원(스마트팜 10억 원) 한도 내에서 최저 금리 수준인 1% 이하로 용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신용조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기금 사용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어촌진흥기금은 1993년부터 도·시군, 농업, 수협 등의 출연금과 운영 수익으로 2023년 8월 말까지 총 2,662억 원을 조성해 도내 13,411명에게 7,137억 원을 지원하며 농어가 경영안정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 이상저온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로 그 어느 때보다 농어가의 어려움이 크고,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이 농어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존 농어업인은 물론, 경북 농업대전환을 이끌어갈 첨단 농업 및 청년농 육성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SK에코플랜트, 경주에 3300억 투자...경주시, 경북도와 함께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건립 MOU 체결

2028년까지 경주시 강동면에 대규모 투자, 글로벌 리더십 확보

경주시가 경북도와 함께 SK에코플랜트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유치에 성공했다.

경주시는 8일 경북도청에서 경북도와 함께 SK에코플랜트(주)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SK에코플랜트(주) 박경일 대표이사, 시·도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SK에코플랜트(주)는 이날 MOU를 통해 경주시 강동면 일원에 2028년까지 총 3300억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을 신설하고 약 3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공장은 환경·에너지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SK에코플랜트가 국내 최초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으로 국내 사업을 선점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는 전초 기지가 될 예정이다.

이번에 구축되는 경주 공장은 양극재 스크랩과 사용 후 이차전지를 파쇄해 블랙파우더를 추출한 후, 니켈, 망간, 리튬 등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리사이클링의 모든 공정을 갖추게 된다.

이 공장을 시작으로 향후 경주시와의 협력을 통해 포항-경주를 연결하는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구축해, 사용 후 배터리에서 회수한 유가금속을 배터리 재

조에 다시 투입하는 완결적 순환체계(Closed-Loop)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사용 후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을 위해 기술내재화와 전 세계 주요 거점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가속화 하고 있으며, 자회사 테스(TES-AMM) 등을 통해 미국, 유럽, 등 전세계 산업 요충지에 거점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SK에코플랜트-에코프로-테스(TES)간 유럽 시장 선점을 위한 MOU를 체결해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에 본격 나서고 있다.

SK에코플랜트 박경일 대표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산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SK에코플랜트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배터리 재활용 기술 확보에 앞장서고 더불어 이번 경주시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설립을 통해 국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 회사의 미래사업인 이차전지 리사이클링의 거점으로 결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주신 SK에코플랜트 박경일 시장과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운을 뗀 뒤 “경주시는 앞으로 기업에게 최적의 투자처로서 관련 인프라를 확대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태용/기자

부산시, 2023년 정관박물관 특별기획전 '신(神)과 함께-도깨비 모시기' 개최

도깨비 실감 영상, 도깨비 주술고사 시험지 등 체험프로그램 마련해 다양한 볼거리 제공

부산시립박물관 소속 정관박물관은 내일(12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신(神)과 함께-도깨비 모시기'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한국의 상상 속의 신 '도깨비'를 주제로, 귀면·도깨비 등으로 불리는 유물과 문헌 속 기록을 통해 우리나라 도깨비 형상을 찾아보고 도깨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기획됐다.

전시는 ▲남남 ▲형상 ▲공생 ▲섬기기 등 크게 4개 주제로 나누어 구성됐다.

1장 '남남'은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조선 어독본' 영향 아래 왜곡되어 전래된 도깨비의 올바른 형상을 찾기 위해 '월인석보'·'신증동국여지승람'·'성호사설' 등 조선시대 기록을 통해 우리나라 도깨비를 탐색한다.

2장 '형상'에서는 도깨비모양·귀신문양

·용문양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삼국~고려시대 특정 문양 유물을 전시하고, 그 유물에 담긴 의미와 특징을 소개한다.

3장은 '공생'을 주제로 도깨비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와 위치로 전승됐는지 지배층과 서민들의 기록을 통해 살펴본다. 특히 3장은 우리에게 알려진 도깨비의 특성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는 전시 연계 체험 공간 '도깨비 연구소'가 준비돼 ▲나만의 도깨비 만들기 ▲도깨비에게 소원 빌기 등의 체험을 즐길 수 있다.

4장 '섬기기'에서는 신(神)으로 승격돼 서해안과 남해안 바닷가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도깨비 고사와 부산 기장에서 행해지는 '도깨비 모시기' 고사 등 도깨비 신앙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풍어(風魚)와 도깨비불을 주제로 한 실감 영상과 도깨비 주술고사 시험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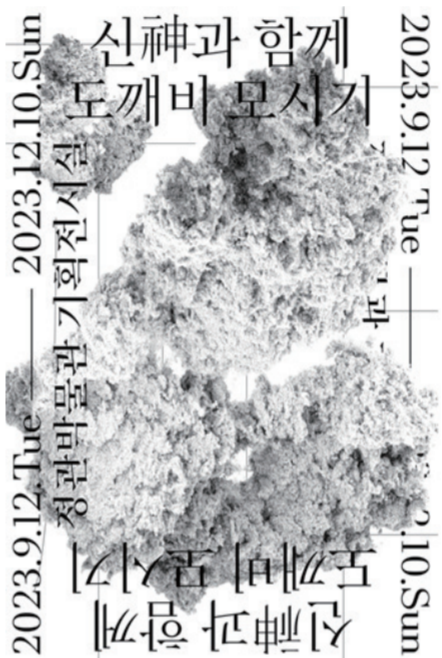
이다.

전시는 내일(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비는 무료다.

매주 월요일 휴관하며,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휴관하고 공휴일은 정상 개관한다.

박미옥 정관박물관장은 “이번 특별전을 위해 전국 각지 13개 기관에서 100여 점의 다양한 유물을 모았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외로 수출된 횡수가 가장 많은 '부여 외리 유적 출토 벽돌'을 비롯한 부산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될 예정이다”라며, “오랜 시간 우리 삶에 내재된 친근하고 낯선 도깨비와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대구시 앞산 충혼탑,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이용자 편의 증진!

대구광역시시는 충혼탑 참배 등 이용객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에스컬레이터 및 참배계단 옆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기존 엘리베이터 옆 경사면에 에스컬레이터 폭 800형, 길이 32m, 상하향 각 1대를 설치하고, 햇빛 및 비가림용 캐노피를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도록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참배 계단 우측면에는 경사로를 폭 1.2m 이상, 길이 36m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2024년 본예산

에 예산 16억 원을 편성하고 내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현 충혼탑은 6·25전쟁에서 조국 수호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의 위패(5,317 위)를 모신 곳으로 6월 호국보훈의 달뿐만 아니라 연중 시민들이 방문·참배하는 대구 대표 추모공간이다.

1971년도에 현 위치에 재건됐으나 앞산공원 복사업 끝자락의 비교적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추 참배객인 연로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이용에 불편을 겪음에

따라 대구시는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 편의 시설 추가설치를 통해 이용객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장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앞산 충혼탑이 국가유공자와 유족,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참배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추모·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윤경희 청송군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총회 참석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간 현안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7일 제10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NN) 총회에 참석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총회는 지질공원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 격년으로 개최되며, 이번 총회는 '전통, 지역경제, 지오투어리즘의 활성화'를 주제로 모로코 마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M'GOUN UNESCO

Global Geopark)에서 열렸다.

총회에는 총 48개국 195개 세계지질공원과 국내외 세계지질공원 추진 지자체에서 800여 명 정도가 참석했으며, 국내에서는 청송, 제주, 무등산 등의 지질공원, 국가지질공원사무국, 한국지질공원네트워크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청송군은 지질공원 홍보부스 운영, 주제 발표(지질공원 대중화를 위한 청송 세계지질공원의 교육 프로그램)를 통해 청송의 관광자원과 지질공원 운영노력을 홍

보했으며, 세계지질공원 운영에 필요한 각국의 지질공원 교육관광 프로그램, 인프라, 지역주민 협력사업 등에 대한 벤치마킹에 주력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총회 참석을 통해 습득한 우수 사례들을 청송군에 적용하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과 글로벌 생태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2023년 가을철 농촌 일손돕기에 총력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경북)지구 회원 영양군 일손돕기에 구슬땀



영양군은 2023년 가을철 농촌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8월 18일부터 민·관·경이 합심하여 지속적으로 일손 돕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9월 9일에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경북)지구 회원 300여 명은 지난여름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지역 내 크고 작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불의의 사고나 부상, 고령 등으로 인하여 고추 수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양군 6개 읍면 10농가에 대하여 봉사활동을 하며 구

슬땀을 흘렸다.

이번 라이온스클럽 경북지구 일손 돕기는 영양라이온스클럽 이동욱 회장이 영양군 우수 농특산물인 영양고추의 본격 수확철에 일손부족이 심화됨에따라 지속적인 요청으로 이루어 졌으며 향후에도 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은 일손 돕기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하여 꾸준히 봉사활동 및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손 돕기를 지원받은 영양읍 대천리 허OO 농가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병

원 입원으로 인하여 고추수확 시기를 놓칠 뻔했는데 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이 일손 돕기에 발 벗고 나서서 한시를 놓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날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한 ‘국제라이온스협회 경북지구 회원들의 일손 돕기로 관내 일손부족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하고, “앞으로 일손부족 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농촌 일손 돕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판소리로 재해석한 한국판 '레 미제라블' '구구선사람들' 영덕에 판을 열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오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영덕무형문화재전수관에서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을 판소리로 재해석한 '판소리 레 미제라블 - 구구선 사람들'을 공연한다고 밝혔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3 공연유통협력지원사업에 선정된 '판소리 레미제라블 - 구구선 사람들'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영덕문화관광재단과 입과손 스튜디오가 주관하는 공연이다.

본 작품은 등장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했고, 프랑스 배경과 인물의 이름도 한국식으로 바꿔 관객의 공감과 이해도를 높였다.

또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모두 한 배에 타고 있다는 설정으로 사회 구조적 모순을 말하고자 한 원작의 주제를 적극적으로 담았다. 소리꾼과 고수 중심의 '전통 판소리'와 배우, 싱어송라이터, 드러머 등의 협업으로 친근감을 높였고 비장하고 엄숙한 이야기 중간 중간에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릴 수 있는 재담과 사설도 적재적소에 배치해 재미를 더했다.

3년의 창작 과정을 거친 '판소리 레미제라블 - 구구선 사람들'은 토막소리를 모아 완창 판소리를 완성하는 '전통 판소리'의 연행 방식을 그대로 차용, 토막소리 주제를 여자(판단), 아이(가브로슈), 청년(마리우스)으로 채택해서 무대화했다.

주인공 '장발장'을 중심으로 세 인물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고 조연에게도 캐릭터를 부여해서 세부 인물의 다양한 서사까지 다채롭게 펼쳐지도록 했다.

또, 이번 공연은 사전에 영덕군 주민을 대상으로 판소리 워크숍을 진행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입과손 스튜디오의 판소리 워크숍 '귀명창 프로젝트'는 공연을 앞둔 아티스트들이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흥미를 이끌어내고자 총 5회에 걸쳐 준비했다.

소리꾼 이승희, 고수 이항하가 주축이 된 이 워크숍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판소리 전통 장단과 발성, 추임새는 물론 판소리(남도민요) 한 대목을 배우며 다양한 감성을 경험했다. 또 자신의 이야기를 장단에 실어 불러보면서 직접 소리꾼이 되는 시간도 큰 호응을 얻었다.

'판소리 레미제라블 - 구구선 사람들' 공연은 11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고관람료는 전석 10,000원. 청소년과 65세 이상, 장애인은 50% 할인이 가능하다.

공연 러닝타임은 110분이며, 예매는 영덕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장문화/기자



'평생교육으로 커피 배워서 카페 열었어요' 예천군, 평생교육 창업 성과 눈길 끌어

김기남 대표, 카페·방앗간이 어우러진 복합공간 '기남이네' 창업

예천군에서는 경북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통해 진행한 '카페 창업 과정' 수료생이 이달아 카페 창업에 성공하며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카페 창업 과정'은 평생학습 기반 직업역량 강화사업으로 카페 취, 창업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청년, 경력단절자, 은퇴자, 은퇴예정자 등 군민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학생들은 약 3개월간 카페 음료, 퓨전 떡 제조 실습을 하고 테라로사 커피박물관 견학으로 성공사례를 직접 체험하며 커피에 대한 이해와 함께 창업 감각도 길렀다.

그 결과 올해 6월 학습생 정광주 씨가 고향인 지보면에 '샤르망' 카페를 개업해 평생교육 창업 과정을 통한 첫 성과를 거뒀으며 '기남이네'는 수료생의 두 번째 창업이다.

이번 카페 창업 성공의 주인공인 호명

면 한여리의 김기남 대표는 참기름을 짜는 방앗간을 활용해 1층은 참기름을 생산하고 2층에서는 그 과정을 직접 눈으로 감상하며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한 점이 눈에 띈다.

김 대표는 "'기남이네'는 직접 농사지어 정성을 담아 짠 건강한 기름 제조과정을 눈으로 즐기며 고소한 커피향까지 음미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만들었다."며 "이제 시작이 아닌 이들에게 특별한함을 전하며 우리 지역의 명소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태환 행정지원실장은 "평생학습을 통해 역량을 발전시키고 실제 창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청년, 경력단절자, 은퇴자 등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사회 진출의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학습 정책을 내실 있게 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제15회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개최

경북 사회복지가 우리가 책임진다! 사회복지사 화합·소통의 장 열려

경북도는 9일 김천종합스포츠클럽 보조경기장에서 도내 민간·공공 사회복지사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5회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체육대회는 2007년 시작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경북 사회복지사들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 간 화합의 장이 되고 있으며, 올해는 축구, 피구, 발야구, 줄다리기, 미션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종목을 진행했다.

또 가장 한국적인 도시, 천혜의 자연환경, 전통문화와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경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경상북도 사회복지사의 열의를 담은 퍼포먼스와 유치 기원 100만 서명도 함께 진행됐다.

경북도에는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시설 1만여 개소가 있으며, 시설종사자 2만2천7백여 명과 도·시군 사회복지직 공무원 2천1백여 명이 일선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창교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은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체육대회는 사회복지사의 우애와 연대의 장으로 안전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게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오늘 체육대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동안의 고충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경북도에서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법전면이장협의회, 봉화 양수발전소 유치 '강한 의지'

이장회의 결의대회, 이동별 동참 운동 등 주민참여 유도



봉화군 법전면이장협의회는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봉화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면 이장협의회 13명은 먼저 6일 면사무소에서 열린 이장회의에서 양수발전소 유치의 효과를 언급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치 확정을 위해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를 다졌다.

이후 7일에는 각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농어민수당 지급 현장에서 지역 최대의 성장동력이 될 봉화 양수발전소의 직간접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하며 양수발전소를 유치해야 한다는 데 군민 공감대를

를 형성했다.

이경철 이장협의회장은 "법전면 이장협의회는 봉화 양수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 말하며,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김경숙 법전면장은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힘쓰고 있는 법전면 이장협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양수발전소 유치에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4-H연합회, 이웃사랑을 위한 배추 정식 실시

의성군 4-H연합회는 지난 7일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옥산면 정자리에 위치한 규모 3,300㎡ 공동과제포장에 배추 정식을 했다.

공동과제포장 4-H회원들이 영농실습을 위해 공동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날 작업에 참여한 회원들은 지난날 초부터 포장에 거름을 주고 땅고르기, 이랑만들기, 비닐씌우기 등을 함께하며 화합을 다져왔다.

김재승 4-H연합회장은 "다들 바쁘게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면서 이번 회원들의 공동작업으로 생산되는 배추는 11월 수확 후 관내 불우시설 및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공동과제포장을 운영, 나눔과 봉사의 뜻을 펼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며 "청년농업인들이 의성 농업을 이끄는 선도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4-H연합회는 지역노체의 4-H정신을 실천하는 청년농업인 학습단체로 현재 6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도 갑자 300상자를 기부하여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나누었다. 특히 올해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미 키즈카페도 운영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영주댐' 준공 기념 '건강걷기대회' 개최

16일, 동호이주단지서 5km 코스 출발...현장접수, 참가비 무료

'2023 영주댐 준공 기념 건강걷기대회'가 16일 영주댐 동호이주단지 삼거리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영주댐 준공을 기념하고 가족 화합과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영주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걷기대회는 동호이주단지 삼거리에서 출발해 용미교, 용두교, 용마루2공원을 지나 평은역사를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5km코스로 진행된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와 코스로 구성된 이번 대회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대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경상북도 거주자라면 누구나 현장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참가자에게는 경품권, 간식(빵, 우유), 기념 수건이 제공된다.

영주시 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

는 완공 7년 만에 준공 승인을 받은 영주댐과 지역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영주댐 자연경관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코스로 간식과 승용차, 전자제품 등 푸짐한 경품추첨 행사도 함께 준비했으니, 많은 분들이 참가하셔서 가을의 영주댐을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다슬기 어린 치패 방류



울진군은 지난 7일 온정면 광풍2리, 근남면 구산3리 하천에서 다슬기 어린 치패를 방류했다.

울진군 주관으로 온정면 광풍2리, 근남면 구산3리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하여 다슬기 어린 치패 125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날 방류한 다슬기는 각고 0.7cm 이상으로 울진군에서 직접 매입 하여 방류했다.

다슬기는 연체동물로 물이 깊고 물살이 센 하천의 바위틈에 무리 지어 서식하며, 높이 약 3cm, 지름 약 1.2cm가 보통이며, 큰 것은 높이가 6cm에 달하는 것도 있다.

아미노산이 풍부해 간 기능 회복 및 숙취 해소에 효과적이며, 눈의 충혈과 통증을 다

스려 시력을 보호해 주는 효과가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환경오염, 남획 등으로 고갈되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다슬기 어린 치패 방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연 생태계복원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영등포구, 공원 내 모래놀이터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기생충 검사, 소독 실시

공원 내 모래놀이터 11개소 집중 관리...상반기 기생충 검사 합격



영등포구가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 내 모래놀이터 11개소(862m²)를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모래놀이터는 다양한 모래 놀이를 통한 아이들의 창의력 발달, 집중력 향상, 오감 자극 등에 도움이 되지만 고양이, 개 등의 배설물 감염과 유리조각 등 위험 물질로 부상의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이에 구는 매년 공원 내 모래놀이터를 대상으로 기생충(선충류, 흡충류, 원충류) 검사 2회,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수은, 6가 크롬) 검사 1회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올해 3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상반기 기생충 검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 영등포근린공원, 문래근린공원, 신우어린이공원 등 공원 내 모래놀이터를 대상으로 한 기생충 검사에서 선충류, 흡충류, 원충류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9월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하반기 기생충 검사와 중금속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 7회 공원 내 모래놀이터에 모래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모래에 있는 작은 돌, 담배꽂초, 날카로운 유리 조각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모래의 탄성을 높이기 위해 모래를 뒤집은 후, 고온의 수증기를 분사해 모래를 소독한다. 모래놀이터 내 놀이시설의 소독도 실시해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매일 어린이 놀이시설 40개소에 대해 놀이 기구의 나사 풀림, 들출 여부, 바닥 패임, 손잡이 흔들림 등 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사고 우려가 있는 놀이시설은 이용을 금지한 후 즉시 조치를 위해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정성문 푸른도시과장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원 내 모래놀이터와 놀이시설은 안전과 위생 관리가 중요한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황신/기자

서울 중구에 '청렴 골든벨' 올려 퍼져

지난 7일 중구청 본관 대강당에서 직원 대상 '도전! 청렴 골든벨' 개최

서울 중구가 지난 7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전! 청렴 골든벨'을 개최했다.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직원들 간 소통의 장을 열기 위해서다. 김길성 중구청장이 최근 개정된 청탁 금지법 조항을 첫 문제로 내며 골든벨의 막이 올랐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에 관한 법령과 공무원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지녀야 할 행동 기준에 관한 문제들이 출제됐다.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며 청렴의 가치에 대해 함께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예선전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10인이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는 체육관광과 백지혜 주무관으로, 최후의 1인으로 선정돼 골든벨을 울렸다. 각 부서에

서 참가자들을 응원하는 열띤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참가했던 한 직원은 "골든벨 형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 헛갈리는 포인트들을 쉽고 재밌게 정리할 수 있었다"라며 "오늘 배운 것들을 토대로 앞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신뢰받는 윤리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공직자로서 법에 맞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 또한 청렴"이라며 "우리 직원들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청렴을 찾아갈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은평구, 학교폭력 예방 위해 민·관·학 손잡고 나선다

학교폭력 예방·대응 협약...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범학교 참여

서울 은평구는 6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학 은평구 학교폭력 예방사업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에는 은평구를 비롯해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구산초·대조초·신사초·은빛초·은평초 등 5개 초등학교가 참여했다.

협약식에는 김미경 구청장, 은평구청 소년상담복지센터장, 각 학교 교장과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협약과 사업의 내용을 공유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모 심리 정서적 지원

▲학교폭력 분야 기관 네트워크 활동 및 연계사업 지원 ▲기타 각 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상호 협력 등이다.

이날 협약과 함께 민·관·학의 상호 협력과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상담교사 등 실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구청 등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전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통합대책은 필수"라며 "아이들이 행복한 은평을 만들기 위해 각 기관 모두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은평구도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성동구, 추석맞이 '성동사랑상품권' 총 120억 규모 7% 할인 발행

상반기만 총 280억 발행...추석맞이 발행분 1인당 최대 월 50만 원까지 구매 가능

서울 성동구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9월 13일과 20일, 2차례에 걸쳐 총 120억 규모의 지역화폐 '성동사랑상품권'을 할인 발행한다.

구는 그동안 코로나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성동사랑상품권 발행을 적극 추진해 왔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 설맞이 성동사랑상품권 180억 원, 2차로 5월에 100억 원을 발행해 상반기에만 총 28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했다. 성동사랑상품권은 발행되자마자, 구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빠르게 소진됐다.

오는 13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발행되는 이번 성동사랑상품권은 7% 할인된 가격으로 1차로 80억 원 발행 후, 이어 20일에 2차로 40억 원을 추가 발행했다. 구매

를 원하는 사람은 서울페이, 신한솔, 티머니페이 등 5개의 앱을 통해 1차와 2차 발행분 합산하여 1인당 최대 월 5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상품권은 성동구 내 다양한 상점과 음식점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와 결제수수료 면제 혜택도 주어져 구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구민 모두가 밝고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제27회
봉화송이 한약우 축제
송이향에 반하고, 한약우 맛에 빠지다.

2023.9.21(목)~9.24(일)
봉화읍 체육공원, 관내 송이산 일원

주최: 봉화군 주관: 봉화축제관광재단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유공자 표창 및 공공구매 우수상품 공모전 시상식 개최

같은 장소 '2023년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도 성황리에 마쳐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9일 원주시 행구수변공원에서 사회적경제 발전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식,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우수상품 공모전' 시상식과 더불어 '2023년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먼저 진행된 사회적경제 유공자 표창식에서는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장 추정우, (주)행복유통 대표 전두희, (주)생각나눔소 대표 소병인, (주)크린산업 대표 이미옥, (주)쌀과일 대표 최희성, 정선아라리한과농원(영) 대표 김태수, 춘천여성협동조합 이사 이신미, 마루장려협동조합 대표 김지훈 이상 8명이 강원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서 '2023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우수상품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주)더루트컴퍼니의 '감자유원지 포파칩 3중세트'가 대상을, 협동조합연과미소의 '건강한 우리기름세트'가 최우수상

을, (주)은세개세로의 '원주 쌀 샌드'가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정선아라리한과농원(영)의 '정선 약도라지 착즙 원액 스틱', 꽃나드리협동조합의 '꽃차 종합선물세트', (주)한주에프앤비의 '힘내라 에너지바', 용대2리주민백담마을영농조합법인의 '황태종합선물세트D', 농업회사법인 별과사람의 '아카시아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상식 이후 (사)강원사회적경제연대가 주관한 '2023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에서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플라마켓을 열어 도민이 직접 상생 가치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권은진 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시상식과 행사가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응원이 됐기를 바라며, 도민들께 상생 가치를 널리 알린 기회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형/기자



충청남도, '건강한 백세! 전국노인체육대회' 막 올라

오는 12일까지 3일간 천안시 일원서 10개 종목으로 진행



충남도는 '건강한 백세! 신나는 체전!'을 주제로 천안시에서 열리는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가 10일 개최식을 시작으로 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식은 김태홍 지사를 비롯해 박상돈 천안시장, 김호일 대한노인회회장, 최희택 충남도노인체육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가운데, 개회선언, 유공자 표창, 선수·심판 대표선서, 축하공연 등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번 대회의 표어인 '건강한 백세, 신나는 체전'처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신명나는 삶을 사시는 것'이 충남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면서 "도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파크골프장 등 건강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대회에서만은 '청춘'으로 되돌아가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서로 친목과 우정을 다지면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오는 12일까지 천안시 일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대한노인회와 충남도노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충남도노인체육회와 대한노인회 충남도연합회가 주관한다.

대회에는 선수·임원·운영요원 등 6500여 명이 참가하며, 당구, 댄스스포츠, 배드민턴, 요가, 탁구 등 5개 실내종목과 축구, 파크골프, 족구, 테니스, 게이트볼 등 5개 실외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낸다.

도 관계자는 "전국 노인들이 실력을 뽐내고 화합할 수 있는 대회"라며 "대회 마지막 날까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초가을 아산시 신정호에서 펼쳐진 '세계 민족무용' 향연

9~10일 신정호 야외음악당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국제민족무용축제' 개최

아산시와 충남도가 주최하고, 아산시 무용단이 주관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국제민족무용축제'가 9~10일 신정호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됐다.

국제교류를 통한 무용의 창의적인 발전과 아산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된 국제민족무용축제는, 국내 유수의 무용단은 물론 아산시와 자매결연도시인 베트남 닌빈성과 중국 동관시의 무용단, 그 외 말레이시아 쿠칭무용단과 몽골국립예술단 등 국제 무용단이 참여했다.

첫날은 개막식 전 충남예술고 무용단과 말레이시아 쿠칭무용단이 사전공연을 펼쳤다. 두 팀은 각각 한국무용 및 현대무용 발레와 모던재즈 공연을 선보였다. 또 식전 공연으로 몽골국립예술단이 악기무가 함께하는 몽골 전통 공연을 펼쳐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본격적인 공연은 말레이시아 쿠칭무용단의 '중이를 자르는 처녀들'로 문을 열었다. 이어 대한민국 경기도무용단, 몽골국립예술단, 중국 동관시 문화관 무용단의 다채로운 공연이 무대에 오르며 신정호를 국제 무용 예술의 향연장으로 탈바꿈시켰다.

둘째 날에도 무용단의 고품격 공연은 계속됐다. 이날은 오후 4시부터 아산도담푸리무용단, 천안시민무용단 등 지역 무용단, 의정부시립무용단의 식전 공연이 문을 열었다.

이후 베트남 닌빈성 체오극장 무용단

과 중국 동관시 문화관 무용단, 말레이시아 쿠칭무용단과 대한민국 단무용단이 폐막공연을 진행했다.

봉공연이 마무리된 뒤 진행된 각 참가 무용단의 커튼콜은 관객과 무용단원이 하나가 되는 감동의 순간을 연출하기도 했다.

폐막식에서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이번 축제 참가를 위해 해외에서 온 중국 동관시 문화관 무용단, 베트남 닌빈성 체오극장 무용단, 말레이시아 쿠칭무용단, 몽골국립예술단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박경귀 시장은 "첫 국제민족무용축제를 열게 됐는데, 말레이시아와 중국에서 자매도시 사절단이 참석해주셔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도시브랜드를 '아트밸리 아산'으로 바꾸고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가 열리면서 시민들이 아산에서도 장르별 최고 수준의 문화공연을 맛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런 노력이 아산에 입주한 외국 기업 종사들에게도 정주 환경이 갖춰진 문화도시라는 인식을 하게 한다"며 "무용축제는 아산시민들에게 다소 낯선 장르이지만, 시민들의 문화예술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틀간 신정호를 춤의 향연으로 물들였던 이번 국제민족무용축제는 디제잉 파티를 마지막으로 내년 2회 개최를 기약했다.

김원호/기자



원주시, 정기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원주시는 9월 7일부터 22일까지 근골격계 부담작업 업무에 종사하는 원주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11개 작업이다.

사업주는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원주시 전 직원 대상으로 진행하며,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근

로자 면담, 사진 촬영을 통해 작업환경, 조건 등에 대해 조사한다.

또한, 원주시는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수준을 측정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절차인 작업환경측정을 오는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와 작업 환경 측정을 통해 작업장의 유해인자를 감소시키고 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충북도, "아세안 시장 개척 시동 건다." ... 2023년 충청권 중소기업 박람회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충청권 중소기업 박람회」 개최

충북도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대전·충남과 공동으로 2023년 충청권 중소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충청권 3개 시·도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비용절감 및 참여기업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공동개최 해오고 있으며, 올해로 22번째 개최되는 행사다.

이번 박람회는 '뷰티&패션', '식품', '홈&아트', '맘&키즈' 등 라이프스타일 분야 48개 기업(시도별 16개 기

업)이 2023년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충청권 부스를 구성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박람회에 참가하는 도내 기업들은 기업별로 130만원 한도 내에서 통역, 물류, 항공비를 지원받으며, 우수기술·제품 전시회, 현지 바이어와 1대1 비즈매칭 수출상담회, 네트워킹 행사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충청권 공동홍보관은 충북의 주력산업을 소개하고 2023 오송화학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10. 17. ~

10. 21.) 등 아세안 시장을 대상으로 충북을 적극 홍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연령 29.9세의 젊은 나라로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니켈 등 핵심광물도 풍부해 향후 우리나라와의 협력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이다. 특히 올해로 우리나라와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이번 박람회

에 더욱 의미가 있다.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은 "도내 유망중소·벤처기업들이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증대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개최된 박람회에서 충북기업은 현장판매와 MOU체결 및 계약진행을 통해 371만 달러, 한화 약 49억원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고정화/기자

태백시, 제3회 황부자 며느리축제 15~17일 개최

태백시는 제3회 황부자 며느리축제가 '물길따라~ 전설따라~ 행복 찾아서'란 주제로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관내 황지연못 문화광장과 황지천 복원물길 일대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15일 황지연못 문화광장에서 열리는 개막행사에서는 박서진, 나팔박, 정세운 등의 축하공연과 함께 개회식, 소망등 띄우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또한, 전국 며느리 가요제가 개최되어 전국의 며느리들이 숨겨왔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예정이다.

16일 둘째 날에는 어린이 사생대회, 마당극(당골할미전), 어르신 장기자랑 대회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태백의 오미자청, 산양유 등 다양한 특산물이 판매되는 플라마켓과 야시장으로 깊어가는 가을 밤을 빼곡하게 채울 예정이다.

17일 마지막 날에는 시민노래방과 관내 고유문화인 황지연못 전설을 한바탕 흥으로 풀어내는 황부자전설마당극이 펼쳐지며 화려한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전영수 황부자며느리축제위원장은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며느리축제를 준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시민의 심터인 황지연못을 누구나 찾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부산시, 2023 그리스 테살로니키 국제박람회 연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나서

9.9~9.17. 9일간 그리스 최대 규모인 테살로니키 국제박람회 현장에 한국관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관 운영

부산시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그리스 최대 규모인 '테살로니키 국제박람회'와 연계해 한국관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관을 조성하고,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유치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스 테살로니키 국제박람회는 매년 전 세계 18~22개국 참가하는 그리스 최대 규모의 국제박람회로, 그리스의 정치 지도자들이 시민들과 만나 경제와 정치 의제를 알리는 만남의 장소이자 기술, 혁신 및 환경 보호뿐 아니라 교육, 레저·관광, 정보통신, 스포츠, 전력·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소개되고 전시되는 종합전시회다.

지난 1926년 최초 개최된 이후 현재는 유럽권역에서 상당히 인기있는 박람회로 자리매김했으며, 그 인기를 증명하듯 개막일(9일)에는 그리스 총리와 각 정부 부처 주요 인사와 많은 관람객이 방문했다. 올해 박람회는 현지시각으로 오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홍보는 박람회가 개최되는 9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그리스 국제박람회 현장인 테살로니키 국제전시센터(13번홀)에 한국관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관을 조성해 진행하고 있다.

두 홍보관은 2030세계박람회 개최 후보국인 한국의 우수한 산업과 문화뿐

아니라, 2030세계박람회 개최후보도시인 부산의 매력과 역량,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주·부제와 지향가치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산업 콘텐츠존(ZONE) ▲한국과 그리스 경제·외교·문화 교류존 ▲2030부산세계박람회 소개존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영상존 ▲부산 이니셔티브 플랫폼 소개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의 전통적 소재를 활용한 그래픽 이미지와 홍보영상으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해 관람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개최후보지인 '북항'의 현재와 미래를 실감 나게 보여주는 북항 홍보영상과 세계적인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부산의 숨은 매력을 선보이는 콘텐츠로 현지인들에게 대한민국 부산을 각인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홍보관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아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꾸며졌다.

홍보관 틀은 한국적 대표 이미지인 전통 기와를 형상화했다.

입구 좌측에 선비와 황후가 각각 그려져 있는 '엑스포 참가하러 왔소이다', '엑스포 준비되어 있소이다' 홍보 시안을 활용한 라이팅 그래픽 이미지를 배치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의지를 시각적으로 극대화했다.



홍보 시안에 있는 선비와 황후는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대한민국의 세계박람회 참가역사와 개최 의지, 개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부산이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기에 준비된 국가(도시)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홍보관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전문 전시해설사를 배치해 관람객들이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관련한 설명을 알기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유치 홍보 활동은 한국이 이제까지 이 박람회에 참가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홍보관은 주빈국과 대사관이 밀집해 있고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돼 박람회 관람객 유동 인구가 많은 테살로니키 국제전시센터 13번 홀에 위치해 유치 홍보와 지지 확산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아울러, 홍보관을 통해 단순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홍보하는 데 머무르

지 않고 대한민국과 그리스 양국간 문화 체험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도 구성해 그리스 정부 관계자와 각국 대사들에게도 상당한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연계 홍보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국을 보유한 유럽권역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부산의 매력과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많은 이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지수'에서 아시아 6위를 달성한 부산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게 오는 11월 유치 결정의 마지막 순간까지 부산의 장점과 대한민국 부산의 뜨거운 유치 열기가 전 세계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시는 유치 총력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서울시·프랑스(佛) 대표 뷰티·패션 기관과 함께 K-뷰티·패션 세계화 방향 모색

9월 13일 한불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노보텔 강남에서 '뷰티패션 트렌드 세미나' 개최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 인베스트서울(Invest Seoul)은 뷰티·패션 분야 벤처기업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뷰티·패션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9월 13일 노보텔 강남 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뷰티, 패션분야 전문가와 해외 투자자가 참석하는 '뷰티/패션 투자트렌드 세미나'는 인베스트서울(Invest Seoul)과 뷰티·패션분야 전통 강국인 프랑스 기업을 회원사로 둔 한불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한국과 프랑스에서 온라인으로 동시 송출된다. ▲2023 뷰티패션 트렌드 발표 ▲올해 투자 전망 소개 ▲유망 국내기업 투자유치(IR) 순서로 진행된다.

뷰티 분야는 1994년 설립된 프랑스 최대 화장품 산학연 클러스터인 '코스메틱밸리'가 발표한다. 화장품 산업 발전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 개발(R&D) 프로젝트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뷰티 산업에 대한 전망을 공유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해 10월, 프랑스 현지에서 케이(K) 뷰티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확대하고 국내 뷰티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코스메틱 밸리'의 회장, 마크-앙투안 자메(Marc-

Antoine Jamet)를 만나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패션 분야는 패션 비즈니스 분야 프랑스 최고의 고등교육 기관인 IFM(Institut Francais de la Mode)이 진행한다. 패션, 명품, 디자인 및 섬유 산업 전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인턴십 과정을 운영하며 차세대 패션 거장들을 대거 배출한 기관인 만큼, 빠르게 변하는 패션 산업 트렌드와 K-팝 문화의 전세계적인 확산을 기회로 K-패션 발전에 도움이 될 통찰과 전략을 제시한다.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뷰티·패션 분야 유망 기업을 소개하는 투자유치 세션이다. 원스톱 피부관리와 주얼리 플랫폼, 비건 화장품, 프린팅 타투 솔루션 등의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투자자에게 기업의 기술과 경쟁력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경환 서울시 신산업정책관은 "9월 한달 간 진행되는 서울의 대표 축제 '더 라이프스타일 서울(The Lifestyle Seoul)' 기간에 맞춰 뷰티·패션 분야 산업 기업과 해외 투자자, 전문가를 연결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행사가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약! 관악S밸리, '관악 S-syndrome' 행사 개최

오는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삼모아트센터에서 개최

관악구는 오는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창업 생태계 확장 및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관악 S-syndrome'을 개최한다.

'관악 S-syndrome'은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미래를 제시한다'라는 주제로 이틀간 삼모아트센터(관악구 신원로 35)에서 관악S밸리 창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행사내용은 ▲창업기업 대상 'S-Tone 포럼'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의 데모데이(시연회)인 '관악 S-라이징 데이' ▲AI 기술시연회, 메타버스 생중계 등이다.

먼저, 구는 13일에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S-Tone 포럼'을 진행한다.

국내 AI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하정우 센터장과 테크프런티어 한상기 대표가 AI, ART, 문화컨텐츠 분야에서 창업기업이 주목해야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알찬 강의를 선보인다.

이날 부대 행사로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지휘하는 AI 로봇 ▲AI와 함께하는 미술수업 관람 ▲AI 탈모 의료진단 서비스 부스 체험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구는 14일에는 '관악 S-라이징 데이'를 진행, 서류심사를 통해 미리 선정된 10개 스타트업 기업이 자신의 기업을 상징하는 단어 4가지를 통해 정

체성을 알리는 특별한 IR(기업소개) 경연을 펼치며 현장 관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구는 이번 행사가 관악구에서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각인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관악 S-syndrome' 행사가 관내 창업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관악S밸리가 대한민국 대표 벤처창업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악구는 2018년부터 낙성벤처밸리(낙성대동), 신림창업밸리(서림동·대학동), 서울대를 포함한 일대 대학과 기업, 지역이 상생하는 창업 생

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악S밸리'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작년 1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육성추진지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강성원/기자



2023 BEAUTY & FASHION TRENDS CONFERENCE

뷰티패션 투자트렌드 세미나

September 13, 2023
3:00 PM - 5:30 PM (KST)
Venue: Novotel Gangnam



AGENDA		
KOREA	FRANCE	
15:00~15:20	-	Register
15:20~15:30	8:20~8:30	Introduction of Invest Seoul
15:30~15:40	8:30~8:40	Introduction of FKCCI
15:40~16:20	8:40~9:20	2023 Beauty & Fashion Industry Trends
16:20~16:35	9:20~9:35	VC introduction and key investment issues
16:35~17:25	9:35~10:25	Company IR and Q&A
17:25~	10:25~	Conclusion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과 화합,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www.goyangcouncil.go.kr



경북교육청, 교육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장려 동시 수상

5회 연속 수상 쾌거!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 과 확산에 앞장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3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도교육청 부문에서 우수와 장려를 동시에 수상하며 전국 최초 5회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적극행정 문화의 정착과 다양한 혁신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교육부가 선정한 전체 우수사례 8건 중 경북교육청은 우수와 장려에 2건이 선정됐다.

우수를 받은 체육건강과 이상호 주무관은 구미시의 우수바우처 시범사업 도

입에 따른 무상우유 급식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으로 구미 지역 특수학교 학생들의 무상우유 급식이 중단될 위기에서,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으로 시행지침을 개정해 전국 특수학교 학생들의 무상우유 급식을 보장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장려를 받은 교육안전과 장정훈 주무관은 폭염과 강우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등학교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해 '안

심아이심터'를 조성하고 부스내 공기청정기, CCTV, 안심벨을 설치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냈다.

임종식 교육감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경북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문화 조성 과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산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전문직업인 성장 돕는다

울산교육청, 11~15일 도자기 핸드페인팅 작품 전시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재능 있는 장애학생을 문화예술 전문직업인으로 양성하고자 맞춤 교육과 공연, 전시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11~15일 울산시교육청 1층 로비에서 다다름미술엔디자인 주관으로 교육생 도자기 핸드페인팅 작품 93여 점을 전시한다. 이 과정에 학생 5명이 참여했고 참여한 학생 모두 전문 자격증을 수료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전시회 이외에도 지역사회 축하 연주, 각종 행사 식전 공연 활동도 지원한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울산시협회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오는 19일에 서울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에서 선배와의 거리(버스킹)공연을 한다. 10월 3일에는 사랑예술제가 열리는 울산문화예술회관(울산시 남구)에서 공연한다.

울산출품품 특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11월 8일에 울주문화예술회관(울산시 울주군)에서 지적장애인 '연' 무용단 정기 공연 에 협연할 계획이다.

지역 아파트 협회, 노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생포교래박물관 등에서도

공연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장애인문화교류울산시협회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3명은 지난 8월 동강병원 리플양상블 정식 단원으로 취업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취업자 교육 현장 실습, 자격·수료증 취득에 필요한 직업훈련 과정 제공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공모를 거쳐 장애학생 문화예술 전문직업인 양성 특화 프로그램 위탁 운영기관으로 4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은 다다름미술엔디자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울산시협회, 뮤직팔레트, 울산출품품이다.

이들 기관은 문화예술 분야 직업교육, 1대1 문화예술교육, 개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지원, 전문직업인 양성 교육·훈련 실습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장혜경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재능을 살려 문화예술 분야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진/기자

경북교육청, 학생 중심 초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총력!

2학기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 논의

경북교육청은 2학기 도내 초등학교의 '학생 중심 교육과정 실현과 수업 중심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학교 현장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 증가로 단편적 지식의 습득보다 학습한 내용을 삶의 맥락에서 적용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중요해짐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삶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2학기에도 모든 아이들이 스

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초등 교육과정 운영 정책을 지원한다.

우선 경북 특화 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인 △놀이중심 교육과정 △학생 성장 교육과정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학교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교육과정 지원단을 운영해 2학기에도 지속적으로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 주도형 수업 확산을 위해 운영 중인 △프로젝트 학습 △교육과

정 재구성 활성화 △학생 주도형 수업 실천 모델 개발과 공유를 위해 도움 자료 제작·보급과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2학기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일(금)에는 도내 초등 교육과정 업무 담당 교육전문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는 1학기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학기 지원 방향 및 세부 계획을 협의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설계도와 같아서 어떤 방향으

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학생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등 교육과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단 2차 협의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안)'의 현장 안착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단 2차 협의회를 8일 개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급별 특수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단을 유치원 분과, 초등 분과, 중등 분과, 특수 분과로 나눠 구성했다. 이들은 지난달 1차 협의회를 열고 총 37개의 정책을 제안했으며, 인천시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안)'을 구성했다.

정책 추진단 위원들은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추가적인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2차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업무 담당 부서의 검토과정을 거쳐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협의회에 참석한 정책 추진단 위원들은 "이번 종합대책(안)을 보니 1차 협의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촘촘하게 반영하고자 한 교육청의 노력이 보였다"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협상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이 수립하기를 희망하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이 학교 현장에 되도록 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부산교육청, 2024학년부터 교사 대면 상담은 사전 연락해야 합니다

민원 대응·피해 교원 지원과 신청 방법 등 안내

2024학년도부터 자녀 성적 등으로 교사와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사전에 연락해야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권 지키기 리플릿' 2만 6,000부를 관내 모든 교원에 게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리플릿은 교사와 학교장의 민원 대응 방법, 교육청 법률지원팀의 약성 민원 대응,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치료비·치유비 지원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Q&A 형식으로 제작했다.

먼저, 새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교사 대면 상담은 사전 연락한 후 실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미리 약속하지 않은 상담을 교사들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약성 민원 등으

로부터 보호한다.

2023학년도 하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상담 사전 신청제'에 대한 학부모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약성 민원은 '3회 이상 지속·반복되는 유사 민원', '폭언 등 인격모독 행위', '폭력, 협박' 등으로 규정하고, 발생 시 교육(지원)청으로 즉시 연락하도록 안내했다.

피해 교원이 개인적으로 치료한 경우에는 각종 치료비 최대 200만 원, 정·심리 안정을 위한 개인 치유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 방법도 설명했다.

특히, 이달 1일부터 운영 중인 교육청 법률지원팀 지원 내용도 담았다. 법률지원팀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상담, 법적 분쟁 수행,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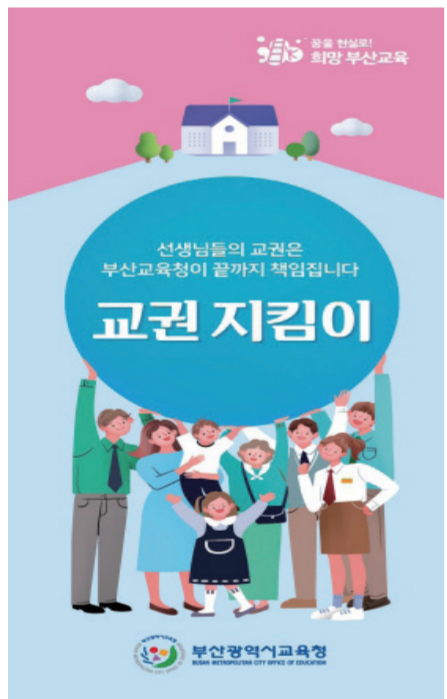
대리 출석, 변호사 선임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약성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즉시 지원하고, 교원힐링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8일 오전 10시 부산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학교장,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리플릿 설명회도 개최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직접 대응해 더 이상 교사들이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우리 교육청이 언제나 교사들과 함께 할 것이며, 이 리플릿이 교사들의 소중한 지킴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GCCF 광주시문화재단

제28회 남한산성문화제

다시, 찬란한 남한산성

9.15 - 9.17 남한산성도립공원 일원

www.nsart.or.kr

서울시, 일 300kg 이상 생활폐기물 배출 미신고 사업장 집중 단속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비닐·페트류 합산 300kg 이상 배출 사업장은 폐기물 신고대상



서울시는 대형건물 등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배출을 감량하고, 혼합배출 방식을 통한 재활용 확대를 위해 사업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비닐·페트(PET)류 등 재

활용 폐기물, 종량제 폐기물을 합산해 1일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21년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7,943톤으로 이 중 대형사업장 1,256개소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1,227톤(연간 45만톤)이다. 이는

66만 가구가 배출하는 폐기물량과 맞먹는다.('21년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1일 300kg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치구에 폐기물 신고서를 제출하고,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스스로 처리하지 않거나 위탁처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9월 중순부터 다량 배출 사업장 1,200여개소를 방문해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에 대해 안내하고, 한 달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중순부터는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음식물류 다량배출장, 에너지 다소비 건물, 대형정화조 설치 사업장 등에 대

한 실태 조사 및 사업장 배출 신고 안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장 대상 여부 판단 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은 사업장 생활폐기물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나, 일반 생활폐기물만 1일 300kg 이상 배출자를 신고대상으로 오인하고 미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는 1,000여개 사업장을 신규로 발굴한다면 연 10만톤의 생활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하루 300kg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함에도 명확한 배출 기준을 몰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라며 "사업장 생활폐기물 대상 사업장의 자발적인 신고문화 정착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인천시 연수구보건소, QR코드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적발 현장에서 발부하는 흡연 단속 확인서에 QR코드 삽입

인천시 연수구보건소는 흡연 단속 확인서에 QR코드를 삽입해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홍보를 시작한다.

기존에는 흡연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 관련 문자를 통해 감면제도를 안내했으나, 이는 가독성이 떨어지고 흡연 단속 후 빠른 감면제도에 대한 안내가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수구는 적발 현장에서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QR코드가 삽입된 확인서를 발부해 과태료 감면제도의 인식을 높이고, 금연 교육 및 서비스 신청 참여를 독려한다.

과태료 감면제도는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3시간 이상의 금연 교육 이수 시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를 면제한다.

다만, 2년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받을 수 없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금연 구역 내 흡연 위반 행위 단속에 그치지 않고, 흡연자 대상 금연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연을 실천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두고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간접흡연 없는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이민근 안산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 간부회의... "먹거리 안전망 구축"

추석명절 앞두고 상인들과 만나 현장 목소리 청취... "농수산물 수거검사 강화"

이민근 안산시장은 농·수산물의 수거검사 강화를 통한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산시는 이 시장이 지난 8일 상록구 이동에 소재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현장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현장회의는 이민근 시장과 간부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농·수산물의 최대 판매처인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추석 대비 물가안정 대책과 농·수산물의 안전한 유통·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민근 안산시장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로 인해 다소 위축된 수산물 유통을 방위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전하고 촉촉한 수산물 관리를 통해 시민들과 상인들이 함께 상생하는 공간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기차게 운영되도록 정책적 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상인에게 힘이 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간부 공무원들에게 거듭 강조했다.

안산시는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유통·생산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홍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확대 운영 ▲수산물 유통 거래실적 모니터링 분석 등 꼼꼼한 먹거리 안전망 구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안산시는 민선8기 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간부회의를 지속 개최하고 있다. 가령, ▲대부도 ▲원곡동 다문화거리 ▲백운공원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세심한 행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상응하는 정책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현장중심 행정을 적극 펼치고 있다.

윤태용/기자



안동시, 교통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안동시는 올 상반기에 추진한 교통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의 도입을 완료하고 지난 5일 첫 발송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부정차 범규 위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고지할 경우, 기존의 종이 통지서를 대신하여 카카오톡 등 개인이 소유한 모바일기기로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과태료를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 종이 통지서의 제작과 발송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고, 오발송 및 개인정보 유출의 방지와 과태료 납부 편의성 제고 등 시민 친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애초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및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 부분만을 계획, 추진해 왔다. 하지

만, 업체와 발전적인 협의를 거듭하면서 예산의 증액 없이 자동차정기검사와 관련한 전자고지 시스템도 추가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와 의무보험 미가입과 관련해 종이 통지서 발송과 모바일 전자고지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정기검사 전자고지도 추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기존의 종이 통지서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해당 서비스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창과방패

고소특 공익신고

창과방패

(돈 버는 비법 지침)

문성욱 지음

문화여성

튀김 주방大변혁

식품유탄성화기기
Vitalro 바이탈로
Oil Fresher

SAMSUNG 삼성화재 1억 보험 가입

유증기 튀출로 쾌적한 주방 환경

유해물질 99.98% 감소

※유증기 발생으로 인한 금속식당 종사자 피해-삼업재해 인정※

금속식당 폐업 결정과 폐업 전까지 폐업 지원금 지급

금속식당 폐업 1만명 돌파...의심자 341명, 총격적인 검진 결과 17개 시도교육청 폐업검사 결과 수검자 32.4% 이상소견 발생 수년째 경고했지만 중력...학교비정규직노조 경진 당사자 입장 발표 예대금 급식위 환경 개선과 인력 지원, 교육부 예대금 촉구

Vitalro는 국내 유일 최극소량 유증기 발생

국내 유일의 최극소량 발생 시험성적표입니다.
(유증기로 인한 주방-매장의 악취·화재발생-조리사의 건강악화를 예방합니다)

비탈로 식용유	일반 식용유
유증기 발생량 비교 실험 (한국기계연구원시험연구원 2023.03.24.-04.05.)	
바이탈로 식용유	일반 식용유
0.02wt%	0.17wt%
(중발량 170°C, 24시간)	

유증기 감소 효과로 쾌적한 업무 환경 조성

현재 운용하는 튀김기에 기존 식용유를 바이탈로 기기에 넣고 활성화시키면, 양자 에너지 생체 활성화로 식용유의 산패 및 열화방지 기능이 우수하여, 식용유의 점도가 현저히 낮고 극나노화 현상이 되면서 1. 결과 속이 동시에 튀겨져 튀김이 깨끗 맛있습니다. 2. 유증기 발생이 최고 99.98% 감소되어 불쾌한 냄새가 없어져 주방 환경이 청결해지고, 인체에 거의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HBS 고향방송 선정 맛집여행 Vitalro 설치업소

영성심 식재료와 깨끗한 주방환경으로 고객에 대한 정성이 깃들 쾌적하고 안전한 매장

(주) Myeonjin Vitalro **설치·상담 문의 1899-9659**

명진 바이탈로 한국친환경실천연구회

/S 및 소비자에게 02)477-5004



제33회 The 33th Gyeongbuk Sports for All Festival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뛰어라 희망을진 날아라 **경북세상**

제 33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

The 33th Gyeongbuk Sports for All Festival

2023.9.22.(금) - 9.24.(일) 3일간

울진종합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



김용임



박지현



양지은

개회식 2023.9.22.(금) 17시 / 울진종합운동장

축하공연 [식전] 김용임 / [식후] 박지현 | 양지은

※ 개회식 참가자 전원 **선물증정** 및 **사은품 천만원 상당** 추첨

[주최] 경상북도·경상북도체육회 [주관] 울진군·울진군체육회

[후원] 대한체육회